

UR타고 밀러드는 米國

◇기획논단...쌀수입 개방압력과 '최소시장 접근론'을 보며

작년 12월 3일부터 7일사이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가 폐막되면서 미국과 EC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강도높게 상대를 비난하였다. 특히 미국의 그것은 노골적인 것이었고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그것은 협상 실패의 여파는 우리에게도 예외일 리 없을 것이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여준 한국의 입장이 미국에 비협조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그것은 당시 일어난 과소비 억제운동, 외국은행 우대 및 금융개방문제 등 자본시장 개방, 심지어는 TV 광고 확대 문제 등과 결합되면서 더욱 거세어졌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압력은 효과를 얻어내 미국과의 통상 무역문제는 '부드러운 것', '만족해 하' 수준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미국의 쌍무적 통상 문제는 최근의 사태가 보여준 대외이다. 금융, 자본, 통신, 법률, 유통,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폭의 확대와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개방양상은, 가히 '터진 불꽃'이라 일컬을 수 있다.

또 한편 미국은 연거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저지'하고 '협조'한다는 다짐을 받아내었다. 그러한 방침은 기회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표명된 것으로 한국은 협상에서 '확실하게' 미국편에 설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러한 다짐이 실질적인 다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왔던 조건의 폐기가 요구되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농산물에 있어서의 개방제의 폭의 포기였다. 이에 노정권은, 농산물협상에서 15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할 것 처럼 선전하더니 15개 품목이 9개, 2개 품목으로 오락가락 하고, 이제는 아예 쌀까지 개방제외의 대상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쌀수입개방이 거론되는 대체적인 테두리이다.

그러하여 그러한 미국의 요구는 국내 쌀소비의 3~5%를 개방한다는 이른바 '쌀시장 최소시장 접근론'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그것은 일본의 개방시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최근 민주당의 일련의 정책 속에서도 구체화되어 나갈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다. 아울러서 '국내 쌀값이 국제가격의 몇 배에 이른다', '쌀이 파잉생산

된다', '농업이 과보호되어왔다', '구조조정'이다 등등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농업보호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유는 없다. 이 글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한 수입개방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와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쌀의 국내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의 3배 이상이다. 그래서 국내가격이 국제 쌀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다는 이 사실은 쌀을 수입해 먹는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값싼 쌀을 수입해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시장가격을 살펴보면, 쌀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수입해 먹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사실은 쌀을 수입해 먹는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값싼 쌀을 수입해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시장가격을 살펴보면, 쌀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수입해 먹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사실은 쌀을 수입해 먹는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값싼 쌀을 수입해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시장가격을 살펴보면, 쌀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수입해 먹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사실은 쌀을 수입해 먹는다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값싼 쌀을 수입해 먹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논리인

최근 가격안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격과정을 연쇄행사처럼 되풀이시키며 농민을 좌절과 비탄의 구렁텅이로 밀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그렇더라도 소비자는 싸게 수입쌀을 살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른다. 이미 벌써 강남지역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된 카르로스 쌀이 국내가격보다 싸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미작농가가 수입미에 놀려 걱정이 되고 수입물량이 그 자리를 대신

해 감에 따라 수입미의 위치는 점차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경제적 자본논리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수입가격이 낮다는 것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 국내쌀을 대신한 수입쌀들은 가격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곡가는 점차 상승할 것이고 결국 절대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도래한다면 그 때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더욱이 자연기후조건과 환경에 의존성이 큰 농업이라는 산업은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식량의 수입개방이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와 같은 직접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식량의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이다. 즉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온전히 자신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은 국가간 식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80년대 초 미국의 대소 곡물금수 조치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식량의 대외의존은 마치 공간을 도둑에게 내주는 것과 다를게 없다. 식량중독, 그것은 민족과 국가를 외국에 저장하는 반역사 행위인 것이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농촌, 농업을 파괴하면서 이농문제,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별써 농촌에는 애움소리가 울려서 된다고 하지만 해마다

약 55만명이상이 계속 농촌을 떠나고 농촌은 노인화, 여성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농촌을 떠나는 이 농민은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주변을 형성하며 도시노동자의 취업부분의 압박과 자본가들의 저임금유지의 주요 고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정권은 농업인구를 한자리 숫자로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6백50만명이 조금 넘는 농민 수백만 명을 농촌으로부터 내몰겠다는 의욕적인 정책이다. 농촌의 50세 이상 노령층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그것은 아무리 '종개'보아주더라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정책이 아니다.

또 수입농산물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사실로는 식품의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식품오염에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꽤 쓸 수 있을

이 아닌 자연수를 사먹고 농약·중금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즐겨 찾으니 오염 농산물의 주요 피해는 도시서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태평양을 건너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약품이 뿌려진다. 싸이 트지 말라고 약이 살포되고 씨지 말라는 방부제가 뿌려진다. 벌레까지 말라고 또 약제가 첨가된다. 검역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그를 위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검역은 형식적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제 처리된 '죽은'식품을 먹는 꼴이다. 심지어 독약을 뿌려 먹는 형국이다.

자주 인용되는 어구에 '身土不二'라는 말이 있다. 몸과 땅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니 자기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뜻으로도 새겨진다.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난 곡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도 있다. 멀리 여행길에 나서 낯선 땅의 물을 마시다 보면 설사 복통이 일



◇현재 쌀의 국내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의 3배이상이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사진(左)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농업이 정말 희망없는, 폐기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오히려 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이지만 미국과 EC국가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수 있는 희망있는 산업이며 튼튼히 세워야 하는 산업이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장에는 다른 곳에 있다.

농민과 개방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가운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무분별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수입개방은 마치 구한말 한일신협약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의 행위를 연상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당시 그에 반대하며 끝내는 일본 대마도에서 굶어 죽은 최현배의 상소문을 오늘날 다시 새겨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이다. "앞으로 생각하건대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어느 대안을 없애오만 이번에 제멋대로 외교양여(讓與)의 조약에 조인한 의

부대신 박세준,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박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조중현과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조약을 조인하기에 즈음하여 일본 사신이 이미 신약(新約)을 성립시키기 위해 왔다면 우리 정부가 필시 이를 물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를 알고서도 충분히 일국에 통론(通論)하고 백성들에게 죽음으로써 義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 석상을 아무도 모르는 한 밤중에 잠은 그 거조만 보더라도 나라를 팔아먹고자 한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정혁기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부소장)

각종 약품처리된 수입농산물 안정성여부 논란돼 자유무역주의 가면에 가려진 자국농업보호 속성

해 감에 따라 수입미의 위치는 점차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경제적 자본논리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수입가격이 낮다는 것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 국내쌀을 대신한 수입쌀들은 가격지배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곡가는 점차 상승할 것이고 결국 절대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도래한다면 그 때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더욱이 자연기후조건과 환경에 의존성이 큰 농업이라는 산업은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식량의 수입개방이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와 같은 직접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식량의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이다. 즉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온전히 자신의 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은 국가간 식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80년대 초 미국의 대소 곡물금수 조치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식량의 대외의존은 마치 공간을 도둑에게 내주는 것과 다를게 없다. 식량중독, 그것은 민족과 국가를 외국에 저장하는 반역사 행위인 것이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농촌, 농업을 파괴하면서 이농문제,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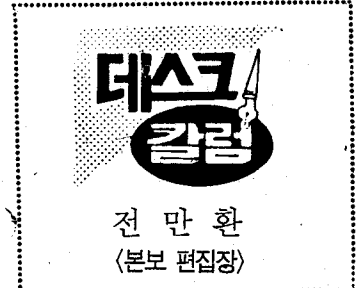
별써 농촌에는 애움소리가 울려서 된다고 하지만 해마다

그쳐버렸다고 하지만 해마다

또 수입농산물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사실로는 식품의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식품오염에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꽤 쓸 수 있을

아나는 경우도 그러한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 이외에도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많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민족의 생존과 안위, 그리고 국민경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왜곡하는 것들이다.

前代의 교훈 모르는 6共



기를 느끼고 운동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가했던 예에서도 이러한 막판의 옥심이 낳은 결과를 알 수 있다. 특히 5공정권은 대중운동의 교두보였던 대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실상 대학의 모든 활동을 정제시키려는 '학원안정법'을 만들었다가 87년 6월과 88년 11월 몰락한 상황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6공과 '학원안정 확대책'

폭풍맞을 권력자의 망령

지난 5월투쟁은 술한 일사를 배출하며 전국적인 투쟁을 한달여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사건'을 만들어 운동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더니 '6.3 외대사건'을 기화로 수세국면을 발전시킬 여론공세와 함께 민중운동세력을 집중탄압해 오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위 '학원안정확대책'이라는 괴물을 등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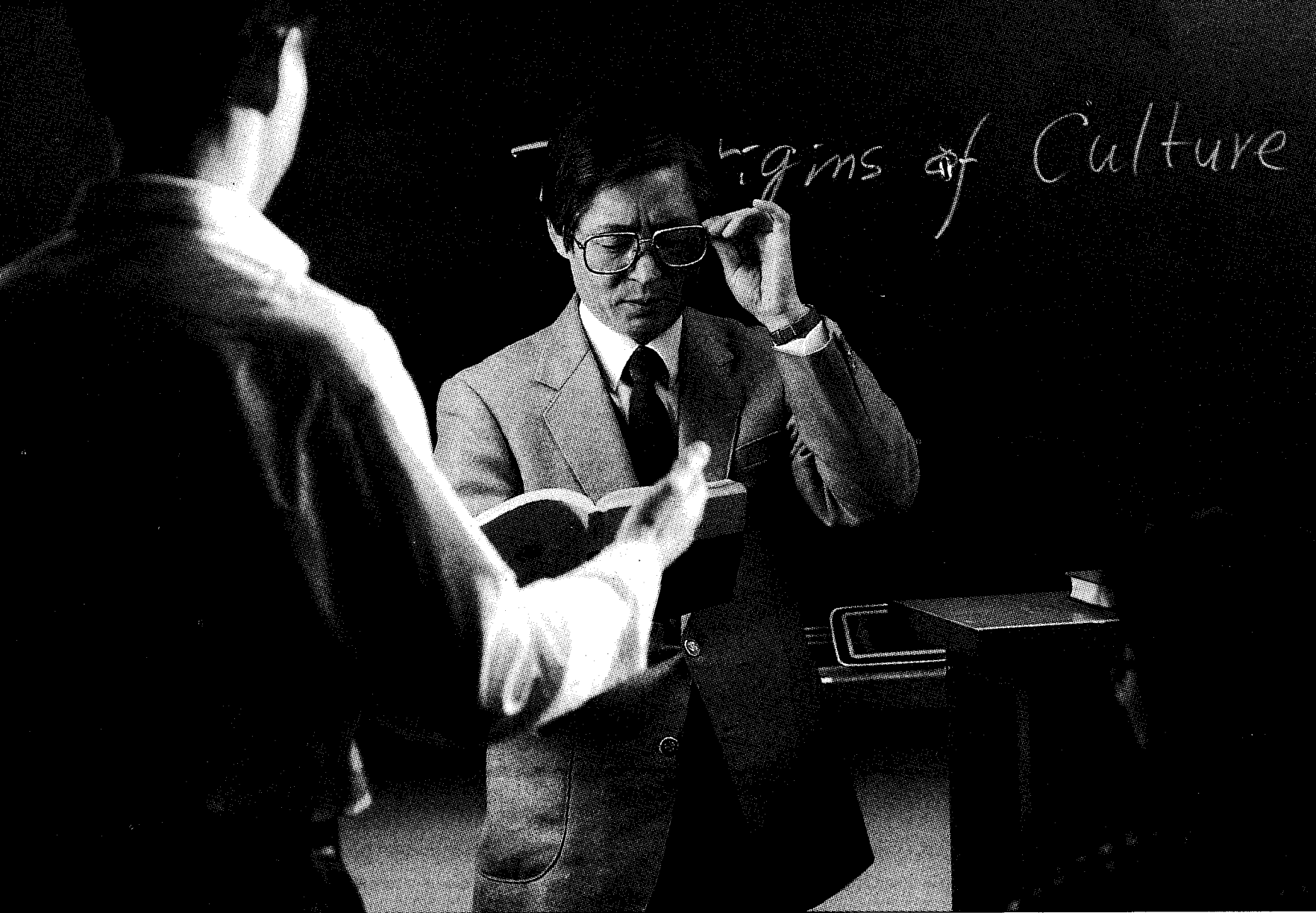
지난 3일 4년제 총·학장모임인 '대 학교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대학내 시설물 파괴자 배상조치, 학생운동의 자금줄이 될 학생회 수익사업 금지, 수업 출석체크 강화 및 성적경고제 부활 등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학원안정(?)을 위해 구구절절히 읊은 대책안은 인정하지만 전후 사정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중 하나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권 자체의 생명과도 관련된 시국문제에 대해선 더욱 폭력스러워지는 단순한 정책생산 배경을 보면 정권이

나 법률의 조항보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 제정되는 정치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는 총·학장, 교수의 임용등 과정의 학생참여 배제, 학보·교지의 사전검열 강화,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 학생간여 방지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4일, 정부는 정권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원안정확대'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성적불량학생 학사정제, 장학금 지급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원풍토

를 쇄신할 것을 결의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열악한 사학제정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등록금 인상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때문에 학내 소요의 불씨로 되어왔다는 이유로 등록금 예고제와 기부금입학제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 가증스럽게도 이런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이에 대학에 청원경찰을 상주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의 옥심을 우연한 망령으로만 보고 지나칠 수는 없다. 노인의 옥수를 들어주며 죽기만을 바라거나 그 옥심을 없애기 위해 '고려장'을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을 입은 바보가 끝까지 다 채워보지 않고는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망령이 불러올 결과는 자연현상처럼 꼭 법칙적이거나 간단하지는 않지만 민중들의 분노와 단결된 힘이 없다면 권력자들의 망령을 극복할 수 없다.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바다를 이루고 폭풍을 일으키야만 노인의 하찮은 옥심이라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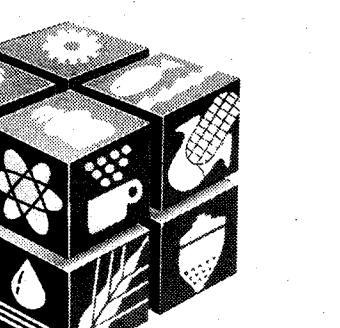
SAM YANG GROUP



집요한 질문으로 가끔 교수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소릴 들을때가 있다

적극적인 삶, 몰두하는 젊음 —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구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에서 기술의 문물인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미래를 이끌 뜨거운 가슴과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그룹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주식회사삼양사(化纖, 電機, 飼料, 水産, 精密化学)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양선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한지문주식회사 ●디안일산파이버 ●삼양합판주식회사 ●영명회 ●수당정화회